

# 펜타토닉스케일을 이용한 블루노트의 적용

김대승\*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 pentatonic@chungwoon.ac.kr

## The Application Of Bluenotes On The Pentatonic Scale Form

Dae-Seung Kim\*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 요약

Blues음악의 대표적 스케일이라 할 수 있는 Mixolydian과 현대적 개념의 Blue Note 스케일을 혼용하여 사용하면 Chromatic 스케일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Chromaticism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음의 나열은 자칫 Bluenote와 블루스음악의 본질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던 Bluenote인 b2nd, b3rd, 11th, b5th, b6th, b7th들의 보다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수직적 도약진행을 내포하는 Pentatonic Scale과도 연계하여 그 활용 가능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 1. 서론

블루스음악의 시대와 장르를 불분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블루스 스케일로는 Mixolydian 스케일과 Blue Note 스케일(Minor Pentatonic 스케일과 동일한 구조의 5음계형식)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을 C Blues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C Mixolydian & C Bluenote

하지만 이 전통 Blue Note 스케일은 이후 앞선 선

행논문 “블루노트의 현대적 개념”에서도 언급된바와 같이 블루노트의 개념을 기존 b3rd, 11th, b7th음들에만 국한 시키지 않고 신 개념의 블루노트라 할 수 있는 b2nd, b5th, b6th음들에게 까지 확대시킴으로서 그 스케일의 구조가 훨씬 복잡해진 형태를 띠게 된다.

C Modern Blue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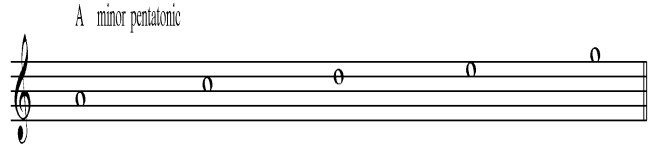


[그림 2] C Modern Bluenote

이처럼 블루노트의 현대적 개념과 정의를 토대로 새롭게 완성된 Blue Note 스케일을 Mixolydian 스케일과 함께 블루스음악에 적용시키면 이끈 음 7th를 제외한 모든 음들이 블루스연주에 사용되는 결과가 되며 이들 스케일 간의 구성 음들을 하나의 스케일로 통합하여 나타내면 Chromatic 스케일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를 “Blues Chromatic 스케일(가칭)”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림 3] C Blues Chroma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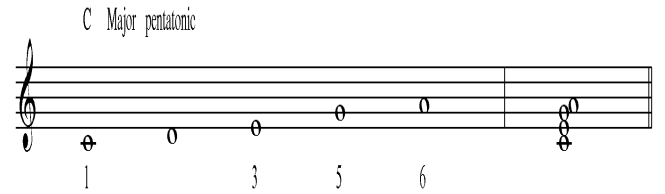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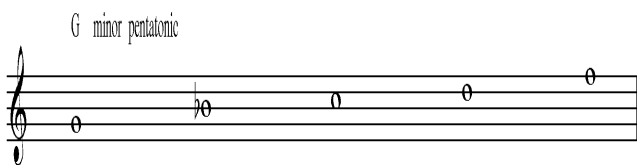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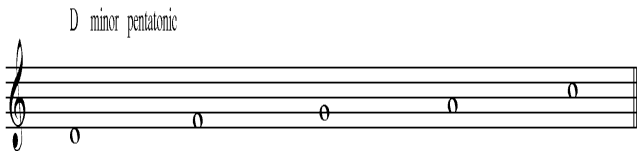


[그림 4] D, G & A Minor Pentatonic

실제로 이러한 Chromatic 개념의 사용은 현대적 감각의 블루스음악연주에 있어 필수적 요소들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Chromaticism이 반음계로 일관된 수평적인 음의 나열로서 남용된다면 자칫 블루노트의 본질뿐만 아니라 블루스음악의 조성과 정체성까지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던 블루노트들의 보다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Blue Note 스케일이 지닌 강한 선율감의 원천으로 수직적인 도약진행을 내포하는 Pentatonic 스케일의 System과도 연계해 그 활용 가능성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통적 블루노트인 b3rd, 11th, b7th음들이 Minor Pentatonic 스케일의 구조와 동일한 Blue Note 스케일의 구성 음들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던 블루노트인 b2nd, b5th, b6th음들도 포함되어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Minor Pentatonic 스케일의 생성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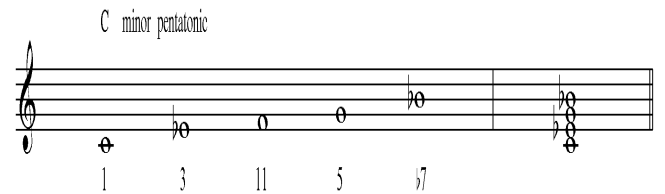
## 2. 본론

태동기부터 오늘날까지 블루스음악의 대표적 스케일 중 하나로 인식되어온 Mixolydian 스케일을 Blue Note 스케일과 같은 Minor Pentatonic 스케일의 구조위에서 살펴보면 3종류의 Minor Pentatonic 스케일이 얻어지는데 이들을 C Blues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C Major Pentato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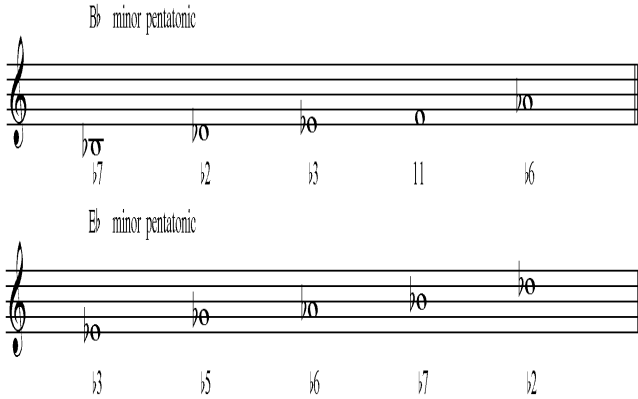
이에 반해 C Minor Pentatonic 스케일과 동일시되는 C Blue Note 스케일의 경우는 구성 음들 모두가 화성학적으로 C Minor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Minor 사운드의 핵심에는 전통적 블루노트인 b3rd, 11th, b7th음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림 6] C Minor Pentato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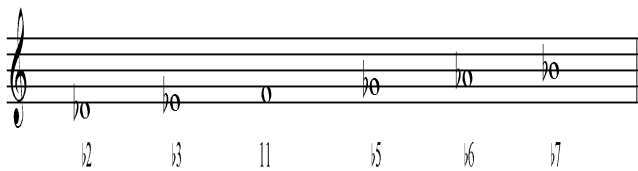
위의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또 다른 블루노트 b2nd, b5th, b6th음들을 특정 Minor Pentatonic 스케일의 주요 구성 음들로 사용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행논문 “블루노트의 현대적 개념”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C Diminished적인 Minor Pentatonic 스케일의 생성을 의미 하는 것이다. 따라서 Diminished 사운드의 극대화를 위해 C Blues Chromatic 스케일위에서 사용 가능한 많은 Minor Pentatonic 스케일들 중 b2nd, b5th, b6th음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스케일을 살펴보면 Bb Minor

Pentatonic 스케일과 Eb Minor Pentatonic 스케일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그림 7] Bb & Eb Minor Pentato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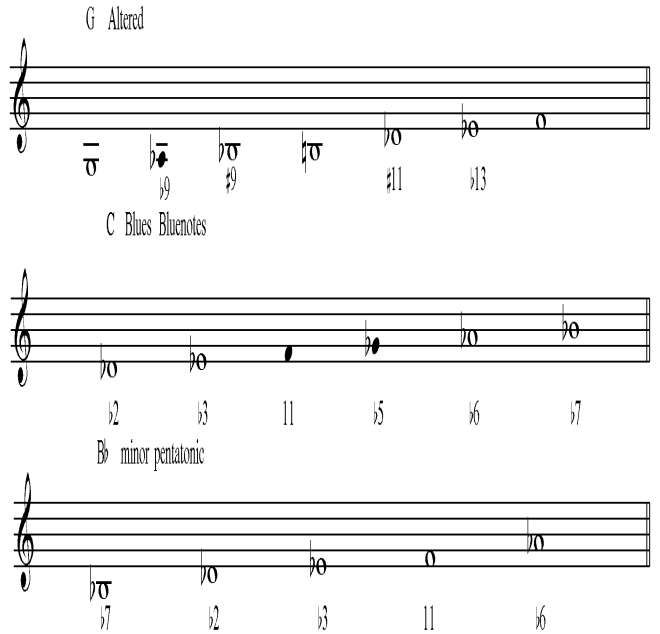
이 두 Minor Pentatonic 스케일들 간에는 한음을 제외한 모든 구성 음들이 공통 음으로 연결되어있어 사운드의 본질이 매우 유사하다 할 수 있으며 이들을 하나로 합쳐 정리하면 전통적 블루노트(b3rd, 11th, b7th)들뿐만 아니라 모던 블루노트(b2nd, b5th, b6th)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Bb Minor Pentatonic 스케일과 Eb Minor Pentatonic 스케일이 속칭 “블루노트의 종결자” 라 할 만큼 블루노트들만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들 스케일의 사용이 가장 블루스적인 동시에 가장 현대적인 Outgoing Play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8] Bluesnotes

한편 선행논문 “블루노트에 근거한 알테르드 스케일의 기원”에서 언급된 V7코드의 Altered Tension b9th, #9th, #11th, b13th등이 블루노트인 b2nd, b3rd, b6th, b7th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 두 Pentatonic 스케일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C Blues의 V7인 G7의 Altered 스케일위에서 생성 가능한 Minor Pentatonic Scale을 찾아보면 Bb Minor Pentatonic 스케일이 유일무이하며 이 스케일의 구성 음들 안에 G7코드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Altered Tension음들

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C Blues상에서의 Bb Minor Pentatonic 스케일이 C7 Blues의 Bluesnotes와 G Altered Scale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중적 성향의 스케일로서 모호한 Tonality를 추구하는 현대적인 감각의 블루스 사운드에 적합한 소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9] G Altered & Bb Minor Pentatonic

또한 Bb Minor Pentatonic 스케일과 매우 흡사한 Eb Minor Pentatonic 스케일의 경우에도 구성 음들 중 한음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같은 맥락위에서 G7 Altered의 사운드로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Bb Minor Pentatonic 스케일이 곧 G Altered Scale이다 라는 위의 결과를 토대로 Eb Minor Pentatonic 스케일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Eb Minor Pentatonic 스케일 또한 C Altered Scale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이는 Bb Minor Pentatonic 스케일과 연계된 G Altered Scale의 경우와 달리 Tonic 코드인 C7코드위에서의 Altered Sound를 의미하며 결론적으로 Altered Scale의 사용 가능성을 Dominant코드에만 국한시킨 기존 화성학적 통념을 뛰어넘는 결과인 것이다.



[그림 10] C Altered & Eb Minor Pentatonic

### 3. 결론

위의 결과물들이 블루스음악에 적용될 수 있는 Pentatonic 스케일들의 전부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블루스음악에서 사용 가능한 스케일들로 Mixolydian과 블루노트 스케일뿐만 아니라 Dorian, Lydian-b7, Locrian등등의 스케일들이 존재하며 이들을 통해 더 많은 수의 Pentatonic 스케일들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후 이처럼 다양한 Pentatonic 스케일들의 모든 적용가능성들에 대해 연구하고 각 Pentatonic 스케일들 간의 유기적이고 기계적인 관계를 System화 시킨다면 Modern Style의 Blues음악연주에 신선한 소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참고문헌

- [1] Barrie Nettles, "Harmony 2 Workbook", Berklee Press, 1995
- [2] Gary Campbell, "Expansions", Houston Publishing, 1988
- [3] Hall Crook, "How To Improvise", Advance Music, 1991
- [4] Bret Willmott, "Book of Harmony", Theory & Voicing, Melbay Publications, 1995
- [5] Ron Miller, "Modal Jazz Composition & Harmony", Advance Music, 1997